

PHOTO ESSAY

사진산책





인천 소무의도

중간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중간.
일상과 심의 중간 같은 사진.
특정 주제나 내용에 치우치지 않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진**

이호준 Lee, Ho-Joon

언론학박사·포토에세이스트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다.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2회 수상하고, 여섯 차례의 개인전과 일곱 번의 단체전을 개최했다. 포토에세이 <직조>와 <걸으면 보이는>을 출간했으며, 여러 월간지와 주간 신문에 사진이야기를 연재했다. 인터뷰 방송에 출연해 사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 대학과 지자체, 공공기관 초청으로 사진 강연을 한다.



삶이란 되돌아보기의 연속이다. 새로운 나이에 접어들거나 직업의 변화 같은 인생의 전환점에 이르렀을 때 더욱 그렇다. 대개 그런 때를 맞이하면 이전의 삶을 복기하거나 아쉬웠던 순간을 되새김한다. 그리고 더 나아지기를, 더 건강해지기를, 더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성찰하며 현재보다 나아지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삶이 어찌 늘 나아지고 발전만 할 수 있겠는가. 성공에 대한 강박이고 중독이다. 생각을 살짝 틀어 발전된 인생만을 꿈꾸지 말고 궤도가 다른 삶을 살아보는 것으로 목표를 바꾸면 어떨까. 그동안 일과 생활에 치여 하고 싶었으나 실행하지 못했던 삶을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풍요롭고 안정적인진 삶이지만 나에게 선물을 주는 행복한 인생을 살겠다는 결의다. 물론 무작정 희망과 욕망을 좇을 순 없다. 엄연한 현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과 배분이 필요하다. 현실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낮추고, 이상과 희망은 조금 높게 잡아보면 어떨까. 지난 삶이 아쉬워도 크게 후회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욕심과 의욕은 조금 누그러뜨리고 평소 하고 싶었던 다른 삶을 구상하고 실행 계획을 짜는 것이다. 결말은 알 수 없다. 그래도 시도해봄 직하지 않은가.